<수업 내용 정리 및 소감>

요즘에 있어서 창업은 거의 필수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요즘에 트랜드에 맞추어 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 의견에 맞추어 이번 강의는 창업과 그에 호응하는 벤쳐투자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스타트업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새롭게 나타난 창업기업을 의미하는 말인데, 대부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창업자가 지는 만큼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해서 상장까지 하게 되면 취업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기술, bm, 컨텐츠 등이 있으면서, 그를 이루게 해줄 사람들,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스타트업은 초반에 매우 부진하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게 된다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만큼 초반에는 매우 힘들기에 이를 견딜 창업자들은 단단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자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도전하기에 모험가 기질이라고도 마른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정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창업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편이다.

벤처기업에게 캐피탈을 준다는 직관적인 의미인 VC는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진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고 또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말한다. 벤처캐피탈은 어찌보면 이미 능력을 있는 사람을 보고 뽑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벤처캐피탈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창업자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이 저점에 투자하고 고점에 파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다. 그렇기에 창업자에게 있어서 벤처캐피탈은 동반자와 같으며, 캐피탈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기술력, 이익률, 같이 일하게 될 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VC가 집중하는 기술은 즉 벤처기업이 목표로 하기 좋은 기술과 동일한 말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또 신재생 에너지 등, 유용하고 관심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VC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강의는 굉장히 유용한 강의였을 것 같은데, 이날 예비군 때문에 수업을 못들은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다. 특히 VC의 경우에는 현대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VC입장에서 어떻게 비추어 질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창업을 목표로 한 사람으로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아쉽다. 여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런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